

“두바퀴로 3일 걸리는 귀성길 가을 들판이 반겨줘요”

보성으로 자전거 귀성 8년째...경기도 고양시의회 조계일 씨



“자전거를 타며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제가 근무하는 고양시까지 홍보할 수 있어 1석3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조계일(42)씨는 올해도 ‘특별한 추석 귀성길’을 다녀왔다. 보성군 노동면 거석리 출신인 그는 고양시에서 시골집까지 왕복 1000km를 자전거를 타고 다녀왔다.

조씨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귀성일지 모르지만 저는 매년 다니는 것이라 평소처럼 다녀왔다”고 담담하게 소감을 전했다.

추석을 앞두고 미리 휴가를 낸 조씨는 지난 15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집에서 출발했다. 이후 천안(15일), 정읍(16일)의 짙짙방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출발한 지 3일 만인 17일 고양에 도착했다. 하루에 10시간 가량 달리는 강행군이지만 지난 8년 동안 추석과 설 등 명절마다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그가 처음 ‘자전거 귀성’을 떠난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다.

“뇌졸중을 앓고 계신 어머니에게 힘을 드리고자 시작했어요. 워낙 멀고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다들 못할 것이라 했지만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시며 어머니께서 기력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자전거 귀성은 지난 2008년 어머니

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 됐다. 처음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만류하던 가족들도 건강과 활력을 얻은 모습에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이제는 자전거의 매력에 빠져서 출퇴근은 물론 출장을 다닐 때도 자동차 대신 페달을 밟고 있다. 조씨는 자전거를 단순히 레저를 위해 타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조씨가 전하는 자전거의 매력은 ‘거리에서 만나는 즐거움’이다. 추석을 앞두고 풍성해진 가을 들판을 자전거로 달리면 자동차 지나칠 때는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옷과 헬멧에 붙은 고양시 로고를 보고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는 이들도 많이 만났다.

“여러 해 동안 자전거 귀성을 하며 제 사연이 포털

사이트 등에 소개됐는데 이후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주세요. 시원한 물 한 컵 주시는 분도 있고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기분 좋죠.”

매년 명절 때마다 자전거로 다니며 만나는 인연도 생겼다. 전북 정읍 입암마을 소속인 정씨는 매년 만나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다.

지난 6월에는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를 빛낸 37인의 공적자’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조계일 씨는 “시간이 갈수록 국토 여건이 나아져서 자전거 귀성을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며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시민인권상’



광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수여하는 제20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과 명예 회복에 힘쓰면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인권옹호에 기여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시민모임 김희희 상임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문제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24일 오후 6시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창립 제106주년 기념행사’에서 진행된다. 상금은 2000만원이다.

/양세열기자 hot@

‘인구 늘리기’ 나주 성북동 1만번째 전입신고



인구 늘리기에 나선 나주시의 한 동네에 1만번째 주민이 최근 전입 신고를 했다.

나주시 성북동은 23일 “지난 12일 1만번째로 전입 신고를 한 이현녀(50·사진 오른쪽)씨에게 꽃다발과 함께 농산물을 선물로 전달하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에서 살다가 치킨집 개업을 위해 성북동에 동지를 트이려는 “뜻밖에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고 선물도 주시니 이제 갖 시작한 치킨집이 대박날 것 같다”며 “공동력신도시가 들어서는 나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성북동은 나주 대표 구도심으로 10여년 전 인구 7900명선까지 떨어졌다 이후 꾸준한 증가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여수 이경애씨, 나주 천수봉씨, 담양 이순자씨, 곡성 김혜숙씨, 고흥 송인숙씨, 영광 최윤자씨, 진도 김영숙씨

남도 최고 손맛 ‘음식 명인’ 7명 첫 지정

산과 바다에 풍부한 신선한 재료와 특유의 손맛으로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고 있는 ‘음식 달인들’이 전남도 남도음식명인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23일 전통 남도음식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남도음식명인 7명을 선정했다.

남도음식 명인은 지난 1994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전시·경연 분야에서 대상 또는 최우수상을 2회 이상 수상한 사람 중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명인은 여수시 이경애·나주시 천수봉·담양군 이순자·곡성군 김혜숙·고흥군

송인숙·영광군 최윤자·진도군 김영숙씨다.

이경애씨는 갖물을 이용해 김치와 찜밥을 만들고 있으며, 천수봉씨는 흥어 삼합을 비롯해 배말이등심구이, 배떡갈비 등 지역 특산물인 배를 이용한 요리를 내놓고 있다.

또 이순자씨는 약다식 명인이며, 김혜숙씨는 닭과 참깨를 이용한 요리와 은어구이를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밖에 송인숙씨는 유자를 이용한 음식과 수수부꾸미를 맛있게 요리하고, 최윤자씨는 굴비찜과 배추동치미, 폐백음식의 명인이다.

김영숙씨도 흑미와 구기자를 이용해 떡과 식혜 등을 만들어내 내고 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순천 나안읍에서 열리는 제20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남도음식명인 지정서를 수여하고 명인의 영업장 또는 가정에 지정패를 부착해줄 계획이다.

또 음식전시관 내에 남도음식명인 음식 전시관을 마련해 전시·홍보할 예정이다.

전남도 이승욱 관광문화국장은 “남도음식명인 제도는 남도음식 전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매년 남도음식명인을 지정,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주·이인희양 한자시험 사범장학증



사단법인 한자교육진흥회가 최근 주관한 한자시험에서 김민주(송의중 1년·사진 왼쪽)와 이인희(수피아여고 2년)양이 사범 장학증을 취득했다.

김민주 양은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내 기쁘다”며 “한자를 배우며 국어도 큰 도움을 얻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인희 양은 “한자를 공부하며 한자수업은 물론 중국어를 익히는 데도 장점이 많다”며 “시험 합격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보라안과, 오늘 당뇨망막증 건강강좌

보라안과병원이 24일 오후 4시 실명을 유발하는 안과질환인 당뇨망막증과 황반변성에 대해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보라안과병원 김창룡·김영덕 원장이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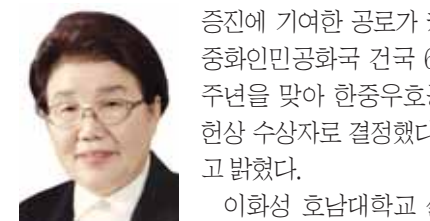
건강강좌는 서구 치평동 보라안과병원 8층 문화센터에서 4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채희종기자 chae@

이화성 호남대 설립자 ‘한중우호공헌상’

이화성 호남대학교 설립자가 중국 정부로부터 한중 우호 및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한중우호공헌상’을 수상한다.

중국 주광주총영사관(총영사 텡안권)은 25일 오후 6시 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중국 건국 64주년 기념행사에서 이화성 호남대 설립자에게 한중우호공헌상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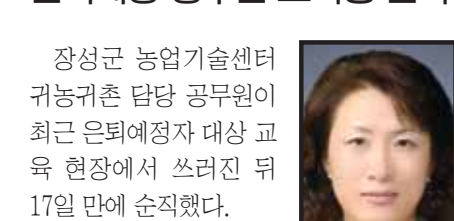
중국 주광주총영사관은 “이화성 호남대 설립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 교육자로서 중·한 교육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중국 유학생 교육 및 복지에 앞장서 왔으며, 중국 주광주총영사관 업무에 전폭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중·한관계 발전 및 양국의 민간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4주년을 맞아 한중우호공헌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화성 호남대학교 설립자는 1942년 한중간 최초로 민간이 설립한 한중문화협회의 고문으로 한중교류와 협력을 위해 애써왔으며, 중국 주광주총영사관의 개설 준비에서부터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주광주총영사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장성농기센터 김봉정 지도관 은퇴예정 공무원 교육중 순직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 공무원이 최근 은퇴예정자 대상 교육 현장에서 쓰러진 뒤 17일 만에 순직했다.

군은 23일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교육원 은퇴예정공무원 현장실습교육과정’을 진행하던 김봉정 지방농촌지도관이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으나 끝까지 업무를 수행한 뒤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져 지난 22일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진도다시래기 무형문화재 김귀봉씨 별세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김귀봉(金貴鳳) 명예보유자가 22일 오후 2시30분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인은 지난 1985년 진도다시래기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 전승자로 활동하면서 국내외에서 이를 알리기 위한 각종 공연을 펼쳤다. 이런 공로로 1997년 예능보유자로 인정됐다가 올해 건강 악화로 명예보유자가 됐다.

다시래기는 전남 진도 지방에서 초상이 났을 때, 특히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 죽은 사람의 초상이 날 때 동네 상여꾼들이 유족을 위로하고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기 위해 전문예능인들을 불러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노는 민속극 성격이 짙은 상여놀이다.

빈소는 진도 진도군 삼림조합추모관에 마련했으며 발인은 24일 오전. 문의 061-542-4717.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 ▲강우석·김향자씨 막내 기오군 김재요(조선이공대학교 교수)·순정금씨 막내 여승양=28일(토) 오전 11시 40분 수아비스웨딩컨벤션(구 경복궁) 2층 크리스탈홀.
- ▲김영자씨 장남 하지용(LG전자)군 류한덕(전 광주시 북구청장)·홍명자씨 막내 오우양=28일(토) 오후 1시 아름다운컨벤션 1층 티파니홀.
- ▲최윤락(성문산업 이사)·서중순씨 장남 병희군 권오태(개인사업)·김순복(KT)씨 장녀 현선양=28일(토) 오후 1시 아름다운웨딩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 ▲김재희(전 청해레미온 부사장)·김국자씨 아들 승전(전대병원 의사)·김이중현·김윤순씨 딸 하나(목포여고 교사)양=29일(일) 낮 12시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 ▲장재철·김순자씨 장남 순평군 성진호·이효순씨 장녀 현아양=10월 3일(목) 오후 1시 웨딩캐슬송 어머니탈

모집

-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10월~12월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 송댄스, 스포츠댄스, 요가 3개월 3만원 (월~목) 062-951-9461.
-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 지지 서비스=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 제공(주 5일 운영) 062-233-0468.
-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자원봉사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분. 062-233-0468.
- ▲한국웃음요기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 ▲늘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동창동문회

- ▲광주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장용환) 임시 이사회 개최=27일(금) 오전 11시 월산동 40-5(동창회 사무실) 062-369-6883.
- ▲나주김씨 광주중친회=26일(목)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10-3399-5050.
- ▲해주최씨 대총회 하계수련회=28일(토)~29일(일) 경기도 강화군 김포시 지역 선조 유적지 집성촌 탐방광주여 28일(토) 오전 7시, 참가 신청은 25일(수)까지 017-365-7865.

중친회

- ▲나주김씨 광주중친회=26일(목)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10-3399-5050.
- ▲해주최씨 대총회 하계수련회=28일(토)~29일(일) 경기도 강화군 김포시 지역 선조 유적지 집성촌 탐방광주여 28일(토) 오전 7시, 참가 신청은 25일(수)까지 017-365-7865.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삼가 故인冥福을 빕니다 卍

故 임춘경 님(남/85세) 子/子婦: 임석환/박선영, 성철/김혜덕, 형철/정현화 女/婦: 임현미/신동현, 화미/박민규, 수미/박경진 • 호 실: 201호 • 발 인: 9월25일 • 장 지: 임실호곡원 • 연락처: 227-4381	故 박덕규 님(남/85세) 子/子婦: 박성원/김영숙, 성주/숙경 女/婦: 임현미/신동현, 화미/박민규, 수미/박경진 • 호 실: 401호 • 발 인: 9월 24일 • 장 지: 나주산포선영 • 연락처: 227-4383
故 이윤숙 님(여/52세) 子: 김수영/이승기 女/婦: 김수영/이승기 • 호 실: 101호 • 발 인: 9월 24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5	故 임승재 님(남/79세) 女/婦: 임영숙/지영덕 孫: 지승철, 승미 • 호 실: 102호 • 발 인: 9월 25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6

마음까지 편안함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